

# 서술어의 논항 구조와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영 현  
조선대학교

**Lee, Young-hern, 1998, Argument Structures of Predicates and Their Semantic Aspect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2.2, 155-18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yntactic criteria for determining a secondary predicates as a predicate modifier or a conjunction, and to formalize the semantic aspects of the [-ke] structure as a predicate in Korean.

Syntactically, the [-ke] structure is considered to be a secondary predicate when the shared arguments appear in both the [-ke] structure and the main verb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f they do not appear in both structures, the [-ke] structure is considered to be a connective element. Semantically the [-ke] structure has numerous aspects such as depictives, resultatives, objectivity, and emphasis. The depictives of the secondary predicate can be formalize as  $p \wedge q$  where  $p$  represents a propositional expression of the secondary predicate and  $q$  is a propositional expression of the main verb. Resultatives have the logical form  $q \rightarrow \Box p$ , because the consequence has to always be true. However, objectivity has the logical form  $q \rightarrow \Diamond p$ , because the consequence can be either true or false. Emphasis is represented as  $q \rightarrow p \uparrow$  because the secondary predicate represents the polarity of the event. (**Chosun University**)

---

<sup>1</sup>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1. 서론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서술어 가운데는 복합동사(complex verb), 사슬동사(serial verb), 그리고 제 2 서술어(secondary predicate) 등이 있다. 이들 서술어는 형태상 적어도 2개 이상의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동사와 서술어로 결합된 구조를 갖는 경우이지만,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은 대단히 다양하다.

- (1) a. Go get the paper.  
b. 호랑이가 아이를 몰어 갔다.
- (2) a. John ate the meat raw.  
b. 장미가 꽃이 곱게 피었다.  
c.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1)의 **Go get**나 **몰어 가다**는 2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복합동사 또는 사슬동사<sup>2</sup>이고, (2)의 **ate raw**나 **곱게 피다** 등은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a)의 **ate the meat raw**에 있어서는 주동사 **ate**와 제 2 서술어 **raw**가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1)의 경우와는 상이한 서술구이다. 즉 (2a)의 경우는 [V + NP + ADJ]의 구조를 갖거나 (2b)에서처럼 [ADJ + A]구조를 갖는 경우 또는 (2c)의 **붓게 걷다**처럼 [V + V]의 구조를 갖는 경우로써 이들은 모두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한다.

특히 서술어 가운데 제 2 서술어는 동사구의 일부이면서 의미상으로는 주어 술어 관계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2a)의 **the meet raw**는 **ate**와 더불어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면서도 **the meet**와 **raw** 사이에는 주어 동사의 관계, 즉 [**the meet is raw**]와 같은 의미적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국어에서도 **꽃이 곱게**는 동사 **피다**

---

<sup>2</sup>사슬동사는 의미적으로 두 동사가 독립적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나 상태 또는 일련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면서도 **꽃**과 **곱게** 사이에는 주어-술어 관계 즉 **[꽃이 곱다]**와 같은 의미적 관계가 성립한다.<sup>3</sup> 이렇듯 제 2 서술어란 동사구의 일부로써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절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두 요소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가 성립하는 서술구를 말한다.

이들 제 2 서술어(앞으로는 서술어로 약칭함)의 주어-술어 관계는 주동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 (3) a. 꽃이 곱게 피었다.  
b. 철수가 (얼굴이) 곱게 생겼다.  
c. 철수가 개를 신나게 때렸다.  
d. 철수가 싱겁게 웃었다.
- (4) a. 철수가 발이 붓게 걸었다.  
b. 철수가 취하게 마셨다.  
c. 철수가 곰을 명들게 찾다.
- (5) a. 철수가 죽게 아팠다.  
b. 철수가 영화를 이가 부러지게 몰었다.  
c. 철수는 코가 비뚤어지게 마셨다.

---

<sup>3</sup>국어의 제 2 서술구를 [주어 + 술어] 관계로 간주할 경우 (i)의 [계]구조 이외에도 [이], [히], [으로] 등의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i) a. [NP + {A, V} + 계]  
b. [NP + A + 이]  
c. [NP + A + 히]  
d. [NP + NP + {으}로]
- (ii) a. 꽃이 곱게 피었다.  
b. 철수가 빨리 왔다.  
c. 영화는 성실히 살았다.  
d. 철수를 스승으로 삼았다.

(ii)는 (i)의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예이다. [계]구조와 마찬가지로 NP가 [이], [히], [으로] 등과 결합하여 의미적으로는 주어-술어 관계를 이루면서도 통사적으로는 동사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서술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 (6) a. 물이 잘 빠지게 하수구를 고쳤다.
- b. 나무가 살게 물을 주었다.

(3) (6)은 모두 서술어구 [게]구조를 갖는 표현이다. 그러나 (3)의 [게]는 주동사의 상태나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이고, (4)는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의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5)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의 경우는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를 수식하는 경우가 아니라, 문장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서술어는 묘사, 결과나 목적, 정도 등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특성은 주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목적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3a), (3b), (3c)는 향주어 묘사 서술어(subject oriented depictive predicate)라고 할 수 있고, (3d)는 향목적어 묘사 술어(object oriented depictive predicat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a)는 향주어 귀결 술어(subject oriented resultative predicate)라고 할 수 있고, (4b), (4c)는 향목적어 귀결 술어(object oriented resultative predicat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극어 술어(polarity predicate)라고 할 수 있고, (6)은 접속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제 2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를 중심으로 이들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 논항과 의미적 특성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문제의 제기

제 2 서술구 가운데 [게]구조는 형태상으로 동일하지만 통사적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서술어구로서 [게]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통사. 의미적 상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명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첫째, 동일한 [게]구조라 할지라도 (3), (4), (5)의 [게]구조는 서술

어구로 간주할 수 있고, (6)의 [게]구조는 접속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게]구조를 서술구와 접속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 (7) a. 개나리가 곱게 피었다. 부사형 접사
- b. 철수는 살게 되었다. 보조적 연결어미
- c. 물이 잘 빠지게 하수구를 고쳤다. 종속적 연결어미

(7)에서 보는 것처럼 (7a)의 **곱게**는 부사형성 접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7b)의 **살게**는 보조적 연결어미, 그리고 (7c)의 **빠지게**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간주하고 있다. (7a)의 부사형성 접사는 물론이고 (8b)의 보조적 연결어미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요소들이다. **곱게**나 **살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였던 간에 **곱게 피다**나 **살게 되다**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써 동사구로 간주한 것은 합당한 주장이다. 따라서 (7a)와 (7b)의 [게]구조는 서술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c)의 [게]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간주하고 있다. 직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 빠지게 하수구를 고치다**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이렇듯 (7)의 서술어 [게]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7a)와 (7b)의 [게]는 접속어미로 간주하고, (7c)의 [게]는 접속사로 간주하였다. 또한 (7a)와 (7b)의 [게]구조를 수식관계 접속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7c)의 [게]구조를 도달관계 접속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문맥에 따른 분류일 뿐 분명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서술구가 갖는 의미적 특성은 주동사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Simpson(1983)에 의하면 **보다(see)**, **발사하다(shoot at)** 등과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문장은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 (8) a. \*I shot at the wolf dead.

b. \*I saw the hero stiff.

바꾸어 말하면 서술구가 묘사적 특성을 갖느냐 아니면 귀결적 특성을 갖느냐는 주동사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셋째, 서술어구로서 [계]구조가 목적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 목적과 결과를 혼돈하거나 이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목적을 결과로 또는 결과를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 3. 서술구의 통사구조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계]구조 가운데 서술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와 서술구가 아닌 경우에 대한 명시적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속어미이든 수식관계 접속문이든 간에 (7a)와 (7b)의 [계]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서술어라 할 수 있으나, (7c)의 [계]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명제간의 관계로 간주하여 이를 접속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상의 분류가 합당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구조의 논항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 (9) a. 개나리가 곱게 피었다.  $\Rightarrow$  곱다(개나리)  $\wedge$  피다(개나리)  
b. 철수가 살게 되었다.  $\Rightarrow$  살다(철수)  $\wedge$  되다(살다(철수))  
c. 물이 빠지게 하수구를 고쳤다  $\Rightarrow$  고치다(하수구)  $\rightarrow$  빠지다(물)

우선 (9a)와 (9b)의 논항 구조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c)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두 명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아님을 말해 준다. 바꾸어 말하면 (9a)와 (9b)에서는 한 문장을 비록 두 명제적

표현으로 표시하였더라도 하나의 논항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서술어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c)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이 빠지다**가 주동사 **고치다**를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9c)의 경우는 두 명제 사이에 논리적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따라서 (9a)와 (9b)의 [게]구조는 서술어라고 할 수 있고, (9c)의 [게]는 문장 접속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공유하는 논항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게] 구조 가운데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와 접속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해진다.

- (10) a. 꽃이 곱게 피었다.  
    곱다(꽃)  $\wedge$  피다(꽃)
- b.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건다(철수)  $\rightarrow$  붓다(발(철수))
- (11) a. 가지가 찢어지게 바람이 불었다.  
        불다(바람)  $\rightarrow$  찢어지다(가지)
- b. 철수는 나무가 살아나게 물을 주었다.  
        주다(철수,물)  $\rightarrow$  살다(나무)

(10)의 [게]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는데 반해서 (11)의 [게]구조는 접속사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즉 (10)에서는 서술구와 주동사간의 결합관계가 연접에 의하여 결합되든 아니면 조건에 의하여 결합되든 간에 이들 명제 표현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11)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없다. [게]구조를 서술어와 접속사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논항 구조에서 두 명제간에 공유하는 논항을 갖느냐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10)의 [게]는 서술어이고 (11)의 [게]는 접속사이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공유하는 논항을 갖는 경우, [게]구조를 서술

어로 간주하였지만 표면상으로 공유하는 논항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2) 철수는 싱겁게 웃었다.

- a. \*싱겁다(철수)  $\wedge$  웃다(철수)
- b. 싱겁다(웃음)  $\wedge$  웃다(철수, 웃음)

(12)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싱겁다**와 **웃다**의 논항은 **철수**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싱겁다**의 논항은 **철수**가 아니라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웃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논항은 **철수**이지만 내부논항은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2)의 의미는 (12b)와 같이 나타내야 될 것이다. 이 경우 두 명제 사이에는 논항을 공유하게 됨으로 (12)의 **싱겁게**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도 표면상으로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붓게**나 **휘날리게**를 접속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3) a.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 b. 철수는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 왔다.

표면상으로 (13a)의 논항 구조는 (14a)나 (14b)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 (14) a. \*걷다(철수)  $\rightarrow$  붓다(발)
- b. 걷다(철수)  $\rightarrow$  붓다(발(철수))

그러나 (14a)의 논리식은 적격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DeBruin and Scha(1988)에 의하면 관계명사는 의미적으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함수표현과 같다는 것이다. 이들 관계명사 가운데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이에 해당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이 완전한 문장이나 명제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관계명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5) a. \*배가 아프다.
- b. \*아버지가 오셨다.

즉 (15)와 같은 표현은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표현이 명제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명사의 논항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 (16) a. 철수(가/ 의) 배가 아프다.
- b. 철수의 아버지가 오셨다.

(16)의 문법성으로 보아 (13a)의 논항 구조는 (14b)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3b)의 논항 구조는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7) 철수는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 왔다.
- 뛰어오다(철수) → 휘날리다(눈썹(철수))

이렇듯 (14b)와 (17)에서 보는 것처럼 관계명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와 일치하는 논항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13)에는 표면상에 공유하는 논항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뚫게**와 **휘날리게**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기저의 논항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8) a. 철수는 나무가 살아나게 물을 주었다.

- b. 철수는 영희가 춤을 추게 노래를 불렀다.
  - a'. 철수는 나무가 살아나게 나무에 물을 주었다.
  - b'. 철수는 영희가 춤을 추게 영희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 (19) a. 주다(철수, 나무, 물) → 살다(나무)  
 b. 부르다(철수, 영희, 노래) → 춤추다(영희)

(18)의 두 문장을 (18)'과 같이 바꾸어 쓰더라도 의미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18)는 물론이고 (18)'의 각각의 두 문장은 (19)와 같은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18a)의 논리구조를 (19a)와 같이 **철수가 나무에 물을 주었고, 나무가 살다**와 같이 표시한다면 두 명제적 표현에는 **나무**라는 공통적인 논항을 갖게 된다. 따라서 (18)의 각각의 [계]구조는 접속사가 아니라 서술구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의 **붓게**와 **철수가 나무가 살아나게 물을 주었다**의 **살아나게**는 모두 서술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붓게**의 논항과 **살아나게**의 논항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논항의 성격이 다름을 볼 수 있다.

- (20)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걸다 (철수) → 붓다(발(철수))
- (21) 철수는 나무가 살아나게 물을 주었다.  
 주다(철수, 나무, 물) →살아나다(나무)

(20)에서는 물론이고 (21)에도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20)의 **철수**는 필수논항인데 반해서 (21)의 공유하는 논항 **나무**는 필수논항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통사적으로 (20)의 공유하는 **철수**는 격조사에 의하여 표시되는 동사의 보충어(complement)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21)의 **나무**는 보조조사에 의하

여 표시되는 동사의 부가어(adjunct)라고 할 수 있다. 즉 (21)의 선행명제의 논항 **나무는 철수가 나무에 물을 주다**와 같은 명제 표현을 논리식으로 표시한 경우임으로 이 경우 논항 **나무**는 필수 논항 **철수**, **물**과는 그 성질이 다른 요소이다.

이렇듯 공유하는 논항을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격조사로 표시되는 보충어인 경우와 보조조사로 표시되는 이른바 부가어인 경우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와 접속사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2) 서술어로서 [계]구조

- a. [계]구조와 주동사는 공유하는 논항이 있어야 하고,
- b. 공유하는 논항이 필수논항(보충어)이어야 한다.

이렇듯 동일한 [계]구조를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동사의 논항과 서술어의 논항 사이에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접속사로 간주되며, 서술어와 주동사의 논항 구조 사이에 필수논항을 공유하는 경우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로, 국어에 있어서는 주동사에 의하여 서술어구의 의미적 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3) a. 철수는 참새를 조심스럽게 겨냥했다.

- b. 철수는 과녁을 지겹게 겨냥했다.

(24) a. 철수는 과녁을 뚫어지게 겨냥했다.

- b. 철수는 과녁을 높게 겨냥했다.

영어에서는 (8)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다**, **발사하다**와 같은 동사는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동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3)과 (24)에서 보는 것처럼 **겨냥하다**와 같은 동사는 겨냥하는 행위가 목적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서술어 **조심스럽게**, **지겹게**, **뚫**

**어지게**, 그리고 **높게** 등과 함께 쓰일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과 (24)는 문법적이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주동사의 성질에 관계없이 서술어에 의하여 의미적 특성이 드러난다. 즉 (23)과 (24)는 동일한 주동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의 **조심스럽게**, **지겹게**는 향주어 묘사 술어라고 할 수 있고, (24)의 **뿔어지게**, **높게**는 향목적어 묘사 술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3)의 경우 **조심스럽게**, **지겹게** 등이 **겨냥하다**에 대한 귀결적 관계는 아니다. 만일 **조심스럽게**, **지겹게** 등이 주동사에서 야기된 결과라면 (25a)의 의미는 (25b)와 같은 논리 구조가 될 것이다.

- (25) a. 철수는 참새를 조심스럽게 겨냥했다.
- b. \*겨냥하다(철수, 참새) → 조심하다(철수, p)
- c. 겨냥하다(철수, 참새) ∧ 조심하다(p)

(25a)가 의미하는 것은 철수가 참새를 겨냥하는 행위가 조심스러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5b)와 같은 논리적 표시는 비적격형이다. 또한 (23b)의 **지겹게** 역시 동사 **겨냥하다**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 겨냥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23)과 (24)의 예를 통하여 주동사가 동일하더라도 서술어구가 갖는 의미가 상이한 것은 주동사에 의하여 귀결적 의미나 묘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구의 특성에 의하여 귀결성이나 묘사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겨냥하다**와 같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라 할지라도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이 주동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26) a. 철수는 고기를 타게 구웠다.
- b. 철수는 고기를 까맣게 구웠다.
- (27) a. 철수는 고리를 지겹게 구웠다.

- b. 철수는 고기를 힘들게 구웠다.
- c. 철수는 고기를 쉽게 구웠다.
- d. 철수는 고기를 어렵게 구웠다.

(26)과 (27)의 주동사 **굽다**는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이다. (26)에 있어서는 고기가 탄 것은 굽는 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이고, 또한 고기가 까맣게 된 것도 굽는 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이므로 주동사 **굽다**는 귀결절을 유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7)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술구가 귀결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27a)의 서술구 **지접게**는 굽는 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가 아니다. 만일에 지겨운 것이 주동사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결과라면 (28a)의 의미는 (28b)와 같은 논리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28) a. 철수가 고기를 지접게 구웠다.
- b. 굽다(철수, 고기) → 지접다(굽다(철수, 고기))

(28a)가 의미하는 것은 철수가 고기를 굽는 행위나 과정이 지겨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8b)와 같은 논리식은 비적격형이다. 이와 같이 (27)의 **지접게**, **힘들게**, **어렵게** 등은 모두 동사 **굽다**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 굽는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주동사에 의하여 서술구의 의미적 특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구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4. 서술구의 의미적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술구와 주동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두 명제의 결합(conjunction)관계이거나 조건(conditional)관계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두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

사이의 상관관계가 서로 상이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술구가 갖는 몇 가지 특성 살펴보고자 한다.

#### 4.1. 묘사성

묘사성(depictive)이란 [NP + {V, A}+게] 사이에 주어 술어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주어 술어 관계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이다

- (29) a. 꽃이 곱게 피었다. (자동사)
- b. 철수가 싱겁게 웃었다. (자동사)
- c. 철수가 가구를 비싸게 팔았다. (타동사)
- d. 철수가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타동사)

(29a)의 경우 **곱다**의 주어는 **꽃**이며, **피다**의 주어 역시 **꽃**이다. 이 경우 서술어 **곱게**는 주동사 **피다**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다. 또한 (29d)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명이 난 것은 **철수**이고 철수가 신명나게 한 행위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신나게**는 부르는 행위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묘사성 가운데는 상태(stative)묘사와 행정(stage)묘사로 세분될 수 있다. 우선 상태묘사는 서술구 가운데 NP와 서술어 사이의 관계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Rapoport, 1993)에 의하면 상태 묘사는 서술구의 서술어에 의하여 NP의 지시물에 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이다. (29a)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 곱게**에서는 꽃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고운 상태로 전이된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꽃이 피어있는 그 순간에 미웠던 꽃이 고운 상태로 전이된 경우가 아니다. 즉 (29a)는 그 꽃이 고운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 변화가 수반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29b)에서도 웃음이 싱거웠고, 그 싱거운 웃음을 웃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29a)는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이고, (29b)

는 목적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행정묘사는 행위의 전이가 있는 경우이다. 우선 (29c)의 의미는 철수는 가구를 팔았고, 그 가구의 값은 원래의 폐겨진 값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이다. 즉 **비싸게**는 주동사 **팔다**에 대한 수식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묘사적이다. 그러나 **비싸다**와 **팔다** 사이에는 값의 변동이 유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가구의 값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로써, (29c)의 경우는 가구가 팔리는 과정에서 값의 변화가 생긴 경우이므로 이는 곧 행정묘사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비싸게 팔다**의 의미는 철수가 가구를 판 것도 사실이고, 철수가 판 가구의 값이 비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구의 값을 알고 있으면서 팔기 이전에 가구의 값을 올린 경우이다. 만일에 철수가 비싸게 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받아놓고 보니 비싼 결과가 되었다면 그것은 상행위에 있어서 잘못이 빚어진 경우이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가구의 값을 올린 경우라면 이는 가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임으로 행정묘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9d)에서도 서술구에 의한 행위의 전이를 볼 수 있다. (29d)에서 신나는 대상은 **철수**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이지만 논의의 관심은 서술어 **신나게**가 나타내는 행위의 전이 유무이다.

- (30) a. 철수는 슬픈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 b. 철수는 슬픈 노래를 슬프게 불렀다.

**신나게**와 같은 표현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전 단계가 신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전제한다. 우선 철수가 신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철수가 노래를 부르기 전 단계에서는 철수는 신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수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는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

<sup>4</sup>**비싸게 팔다**는 판매한 행위로부터 값이 비싸다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귀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나는 대상이 노래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래가 신나는 노래가 아니었지만 가수에 따라 노래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슬픈 노래가 신나는 노래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나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나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전 단계에서 신나는 단계로의 전이를 의미함으로 행정 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슬픈 노래를 신나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도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태의 전이로 간주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나게**가 전 상태에서 전이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31) a. 철수는 신나는 노래를 슬프게 불렀다.
- b. ?철수는 신나는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 c. 철수는 신나는 노래를 더욱 신나게 불렀다.

(31a)의 의미는 신나는 노래를 슬프게 부른 것으로 해석됨으로 이는 전 단계가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1b)가 무의미하거나 잉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태의 전이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나는 노래가 신난다”와 같은 표현이 잉여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은 상태의 변이를 초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31c)가 문법적인 것은 신나는 상태에서 더욱 신나는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나는 단계에서 정도가 높은 단계로의 전이가 발생함으로써 (31c)의 표현은 문법적이다.

마찬가지로 철수가 신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철수가 신나는 상태에서 더욱 신나는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상태나 행위의 전이를 내포하고 있는 (31)의 서술구조는 바로 행정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묘사성이 갖는 특성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즉 묘사성



이 갖는 특성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 다음에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서술어의 행위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선행한다.

뿐만 아니라 주동사가 나타내는 명제적 표현과 서술어가 나타내는 명제적 표현 사이에는 연결에 의하여 결합된다.

- (32) a. 서술어 > 주동사
- b.  $p \wedge q$

그러나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서는 서술어와 주동사 사이에 반드시 (32a)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33) a. 철수는 과녁을 높게 겨냥했다.
- b. 철수는 고기를 지겹게 구웠다.

(33a)의 **높게 겨냥하다**와 같은 경우는 겨냥한 결과가 높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상태로 겨냥한 경우임으로 **높다**와 **겨냥하다**는 동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3b)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기를 굽기에 앞서 지겨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굽는 행위가 우선했을 개연성이 있다. 즉 서술구 **지겹게**는 주동사 **굽다**로부터 야기된 결과가 아니라 굽는 과정을 묘사하는 경우임으로 (32a)와 같은 선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b)의 의미를 논리식으로 표시하면 (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4)  $\text{굽다}(\text{철수, 고기}) \wedge \text{지겹다}(\text{굽다}(\text{철수, 고기}))$

(33b)에서 주동사는 **굽다**이고, 서술어는 **지겹다**이다. 이 경우 굽는 행위와 그 행위의 지겨움 사이에는 적어도 굽는 행위가 지겨운 상태보다는 우선해야 할 것이다. 즉 행위의 선행관계로 볼 때, 지겨움은 행위의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지겨움을 논의하

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지접게 굶다**에 있어서는 굶는 행위와 지켜온 상태는 동시에 유발될 수는 있으나 지켜움이 선행하고 굶는 행위가 후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접게 굶다**에 있어서는 **지접게가 굶다**에 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굶는 행위와 지켜온 상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32a)의 선행관계는 (35)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35) 제 2 서술어  $\geq$  주동사

즉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는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선행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2a)를 (35)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두 명제간의 관계는 (32b)처럼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p \wedge q = q \wedge p$ 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 4.2. 귀결성과 목적성

귀결성(resultative)과 목적성(objectivity)은 주동사의 상태나 행위의 결과 인하여 [NP + 서술어]의 관계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36) 귀결성

- |                        |       |
|------------------------|-------|
| a. 철수가 꿈을 명들게 찾다.      | (타동사) |
| b. 영희가 고기를 뜨겁게 굶다.     | (타동사) |
| c. 철수가 영희를 녹초가 되게 때렸다. | (타동사) |
| d. 철수가 배가 아프게 웃었다.     | (자동사) |
| e. 철수가 발이 붓게 걸었다.      | (자동사) |
| f. 순희가 목이 쉬게 소리쳤다.     | (자동사) |

(36a)의 의미는 철수는 꿈을 찾으며, 철수가 꿈을 찬 결과 꿈이 명들었다는 의미이다. 즉 철수가 꿈을 찬 것과 꿈이 명든 것 사이에는 전자의 행위에 의한 후자의 행위가 비롯된 경우이다. 따라서 **명**

들게 찾다와 같은 복합동사구에서 **명들게**와 같은 서술구는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서술어라 할지라도 결과 즉 귀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37) a. 남편이 입게 아내를 털스웨터를 땀다.
- b. 철수는 영회를 눈자위가 붓게 때렸다.
- c. 철수는 순희가 잠을 자게 놓아두었다.

(37a)에서 아내가 털스웨터를 뜯것은 남편이 입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37a)의 **입게**는 목적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게]구조 가운데는 목적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6)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동사의 행위에 의하여 서술구의 행위나 상태가 유발되는 경우이지만 서술구의 행위나 상태를 유발할 목적으로 주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36a)의 경우 꿈을 명들게 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긴장한 꿈이 아니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꿈에게 명을 입힐 목적으로 발길질을 하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찮기 때문에 그 결과 꿈이 명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명이 들게 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36)의 서술어구는 모두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목적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게]구조가 목적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낸다면 이들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8) 철수는 꿈을 명들게 찾다
- a. 차다(철수, 꿈) → □명들다(꿈) ⇒ 결과
- b. 차다(철수, 꿈) → ◇명들다(꿈) ⇒ 목적

(38a)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꿈을 찮고 그 결과 꿈이 명들었다면

명든 것은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꿈은 반드시 명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꿈에게 명을 들이기 위해서 발길질을 한 경우라면 꿈은 명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발길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꿈이 명든 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참인 경우는 결과로 판정되지만 참이거나 거짓인 경우, 즉 꿈이 명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구가 반드시 참인 경우 즉 필연적 참인 경우와 참일 수 있는 가능한 경우로 분석한다면 목적과 결과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목적과 결과의 차이를 필연적 참과 가능적 참으로 구분한 것은 다음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38) 철수는 꿈을 명들게 찾다

a. 결과 : 철수가 꿈을 찾다면 꿈은 명이 들었다.

a'. \*철수가 꿈을 찾다면 꿈은 명이 들었다.

그러나 꿈은 명들지 않았다.

b. 철수가 꿈을 찾다면 꿈은 명들었거나 명들지 않았다.

(39) 영화는 고기를 뜨겁게 굽다.

a. 결과 : 영화가 고기를 구웠다 그 결과 고기가 뜨거웠다.

a'. \*영화가 고기를 구웠다 그 결과 고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고기는 뜨겁지 않았다.

b. 목적 : 영화가 뜨겁게 할 목적으로 고기를 구웠다.

그러나 고기는 뜨겁지 않았다.

(40) 철수는 영화를 녹초가 되게 때렸다.

a. 결과 : 철수가 영화를 때렸다.

그 결과 영화가 녹초가 되었다.

a'. \*철수가 영화를 때렸다.

그 결과 영화가 녹초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는 녹초가 되지 않았다.

b. 목적 : 영희가 녹초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희를 때렸다.  
그러나 영희는 녹초가 되지 않았다.

(41) 철수는 배가 아프게 웃다.

a. 결과 : 철수가 웃었다. 그 결과 배가 아팠다.

a'. \*철수가 웃었다. 그 결과 배가 아팠다.

그러나 배가 아프지 않았다.

b. 목적 : 배가 아프기 위해서 웃었다.

그러나 배가 아프지 않았다.

(42) 영희는 발이 붓게 걷다.

a. 결과 : 영희가 걸었다. 그 결과 발이 부었다.

a'. \*영희가 걸었다. 그 결과 발이 부었다.

그러나 발이 붓지 않았다.

b. 목적 : 영희가 발이 붓게 하기 위하여 걸었다.

그러나 발이 붓지 않았다.

(38) (42)의 a표현이 문법적인데 반해서 a'의 표현이 비문법적인 것은 곱을 찬 결과 곱이 명들어 있는 상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결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비문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목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절에 초점이 있으므로 귀결절의 참이나 거짓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38b)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곱을 찬 것에 초점이 있을 뿐 곱이 명든 것에는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귀결이 참이나 거짓인 경우라도 문법적이다. 따라서 귀결절의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인 경우를 수용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결과 즉 귀결적 특성은 항상 결과가 참이어야 하지만,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가 항상 참일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

<sup>5</sup>이익환(사적 대화)은 후행절의 진리치가 참인 경우가 귀결성을 나타내고, 거짓인 경우가 목적을 나타낸다면 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리치 테스트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귀결성이나 목적성이 갖는 특성은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를 선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동사간의 선행관계는 (43a)와 같은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나 목적은 주동사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임으로 두 명제간의 관계 역시 조건( $\rightarrow$ )으로 나타내며, 귀결은 후행절이 반드시 참이어야 함으로 (43b)와 같이 양상연산자  $\Box$ (necessity)를 부가하고 목적은 후행절이 참일 수 있는 경우임으로 (43c)와 같이 양상연산자  $\Diamond$ (possibility)가 부가된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3) a. 주동사 > 서술어  
 b. 귀결 :  $q \rightarrow \Box p$   
 c. 목적 :  $q \rightarrow \Diamond p$

### 4.3. 강조

이상에서 살펴본 서술어구가 갖는 묘사성이나 귀결성 외에도 국어에서는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술어구의 의미상 주어와 주격표지를 갖는 경우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 (44) a. 철수는 이가 부러지게 물었다.  
 b. 철수는 코가 비뚤어지게 마셨다.  
 c. 철수가 죽게 아팠다.

(44)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면상으로는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 [게]에 의하여 연결된 접속사 [게]구조와 동일한 경우로 간주할 수도 있다. 예컨대 (44a)는 **철수가 물다**라는 주절에 **이가 부러지다**라는 종속절이 접속된 경우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들 두 명제 사이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명사의 논항을 고려한다면 **부러지게**의 [게]는 접속사가 아니라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45) a. 물다(철수, x) → 부러지다(이(철수))  
 b. 마시다(철수, x) → 비틀어지다(코(철수))<sup>6</sup>

(45)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논리식에는 공유하는 논항을 갖게 됨으로 [게]는 서술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5a)의 경우에 있어서 이가 부러지는 행위나 상태는 무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문 결과로 인해서 이가 부러진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45a)의 경우 **이가 부러지다**는 주동사 **물다**에 대한 묘사성도 아니고 귀결성도 아니다.

이 경우 **이가 부러지게**가 주동사 **물다**를 수식하는 관계로 본다면 이는 행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극(polarity)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무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44b)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가 비틀어진 것이 술을 마신 결과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행위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더라도 코가 비틀어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많이 마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44c)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철수가 죽은 상태에서 아픈 것도 아니고, 또한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다. 다만 아픈 정도가 심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44)의 서술어구가 갖는 의미를 강조라는 한다면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논리식은 귀결성이나 묘사성의 논리식과 달리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44a)의 의미를 (46)과 같은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

<sup>6</sup>이 경우 관계명사 **이**, **코**는 반드시 주동사의 논항과 일치해야 함을 볼 수 있다.

- (i) a. \*철수는 영희(의) 이가 부러지게 물었다.  
 b. \*철수는 영희(의)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다.

(i)의 비문법성으로 보아 관계명사 **이**, **코**는 반드시 주동사의 논항과 일치해야 한다.

- (46) a. \*물다(철수, x) → □부러지다(이(철수))  
 b. \*물다(철수, x) → ◇부러지다(이(철수))

즉 (46a)의 논리식은 철수가 어떤 대상 x를 물었다면 이가 반드시 부러진 경우로써 귀결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46b)의 논리식은 철수가 어떤 대상을 물었지만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로써 목적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46)의 두 개의 논리식은 (44a)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44a)의 의미는 이가 부러진 것은 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경우임으로 **이가 부러지다**가 극점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는 행위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이가 부러지는 것이고, 아픈 상태의 극점은 죽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서술어구는 극점에 의하여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컨대 (44c)의 의미를 (47)과 같이 기술한 것은 철수가 아팠다고 해서 철수가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7) 철수가 죽게 아팠다. 아프다(철수) ∧ ¬죽다(철수)

즉 (47)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아픈 것도 사실이고 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두 행위 사이에 선행관계를 결정해야 한다면 아픈 상태에서부터 죽는 상태로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죽은 상태에서부터 아픈 상태로의 과정은 상정할 수 없다.

이렇듯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주동사의 행위로부터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가 유발되는 결과나 목적도 아니고, 또한 서술어구가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두 행위나 상태의 선행관계에서 보면 주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를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조는 두 행위의 선행관계에서는 결과나 목적에서처럼 [주동사 > 서술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명제간의 관계는 조건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7)에서 보는 것처럼 두 명제간의 관계는 연결으로 연결



되어야 하고, 또한 두 명제간의 관계가 연결으로 표시된다면 두 행위의 선행관계의 입장에서는 [서술어 > 주동사]의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47)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 (48) a. 철수가 죽게 아팠다. 아프다(철수)  $\wedge$   $\neg$ 죽다(철수)  
 b.  $p \wedge \neg q$   
 $\neg(\neg p \vee q)$   
 $\neg(p \rightarrow q)$   
 $p \rightarrow q \uparrow$

(48a)의 표현을 변항으로 바꾸어 쓰면 (48b)의 첫 번째 행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에 DeMorgan 법칙을 적용하고 다시 여기에 조건식을 적용하면 (48b)의 마지막 행과 같이 쓸 수 있다.

(48)과 같은 유도과정을 거침으로써 (44a)의 **철수가 죽게 아팠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9) a. 철수가 죽게 아팠다.  
 b. 아프다(철수)  $\wedge$   $\neg$ 죽다(철수)  
 c. 아프다(철수)  $\rightarrow$  죽다(철수) $\uparrow$

(49a)의 의미를 (49b)와 같이 표시한 것은 주동사 **아프다**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즉  $p \rightarrow q \uparrow$ 와 같이 표시한 것은 p의 내용이 q에 의하여 강조된 경우이다. 따라서 서술어구가 강조를 나타내는 논리식의 일반꼴은 (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0)  $p \rightarrow q \uparrow$

#### 4.4. 중의성

서술구 가운데는 묘사성과 귀결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51) a. 영화는 머리를 곱게 빗었다.
- b. 곱다(머리(영화))  $\wedge$  빗다(영화, 머리)
- c. 빗다(영화, 머리)  $\rightarrow$  곱다(머리(영화))

(51)에서 머리를 빗은 결과로써 머리가 곱게 보이는 경우라면 서술구 **머리를 곱게**는 귀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머리에 빗질을 한 결과 머리가 곱게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영화가 머리를 빗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묘사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머리를 대충대충 빗거나 아니면 거친 행동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안전한 손놀림으로 빗질을 한다면 **곱게**는 빗질하는 행위를 수식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빗질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51b)는 (51a)에 대한 묘사성을 나타내고, (51c)는 귀결성을 나타낸다.

####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국어의 제 2 서술구의 일반적인 형태를 [NP + {V, A} + 게]로 간주하여, 서술구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종래의 서술어구의 다양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게]가 서술구로 쓰이는 경우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구분을 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게]구조가 갖는 논항과 주동사가 갖는 논항의 성질에 의하여 용이하게 구분된다. 즉 [게]구조와 주동사가 필수논항을 공유하는 경우 [게]구조는 서술어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접속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서술어가 갖는 묘사성과 귀결성은 서술어와 주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나 상태의 선행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묘사성은  $p \wedge q$ 와 같은 논리적 구조로 표시되며, 귀결성은  $p \rightarrow q$ 와 같은 논리식으로 표시되지만, 귀결성과 목적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구분도 후행명제의 이행성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즉 귀결성은  $p \rightarrow \Box q$ 로 나타내고, 목적성은  $p \rightarrow \Diamond q$ 로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 서술어구가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는 [계]구조가 극성을 나타내는 경우임으로  $p \rightarrow q \uparrow$ 로 형식화 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승곤. 1987. "이음씨끝 계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 신연구. 서울 : 탑출판사.
- 김영현. 1992. "영어 보문소절의 IP 범주구조 분석," 언어 17.1.
- 서정수. 1987. "계와 사동법," 국어학 신연구. 서울 : 탑출판사.
- 안승신. 1996. "제 2 형용사 서술어의 통사구조," 언어 21.3.
- 윤평현. 1988. "계,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 윤평현. 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서울 : 한신문화사.
- 한재현. 1998. "서술구 구조," 언어학 6.1.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Carrier, J. and J. H. Randall. 1992. "The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Resultatives," *Linguistic Inquiry* 23, 173-234.
- DeBruin, J. and R. J. H. Scha.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Morristown, N.J.
- Dowty, D. R. 1970.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I)," *Journal of Linguistics* 3.
- Jackendoff, Ray. 1976. "Toward an Explanatory Semantic Representation," *Linguistic Inquiry* 7.
- Jong Bok Kim. 1998.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glish and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s*. Manuscript, Kyung Hee University.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CLS* 21.
- Levin, B. and Rapoport. T. R. 1988. "Lexical Subordination," *CLS* 24.
- Rapoport, T. R. 1991. "Adjunct Predicate Licensing and D Structure," in S. Rothstein, ed. *Syntax and Semantics*, vol 25. New York: Academic Press.
- Rapoport. T. R. 1993. "Verbs in Depictives and Resultatives," in J. Pustejovsky, ed. *Semantics and the Lexic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
- Roberts, Ian. 1988. "Predicative APs," *Linguistic Inquiry* 19, 703-710.
- Simpson, J. 1983. "Resultatives," in L. Levin, M. Rappaport and A. Zaenen, eds. *Papers in Lexical functional Grammar*. IULC, Bloomington.
- Tak, Ki Hyun. 1993. "Small Clauses and Predication in English (I)," *Ene* 「Language」 18.1.
-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in John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vol. 4, 249-273. New York: Academic Press.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광주시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외국학 대학 영어과  
501-759  
E-mail: younglee@mail.chosun.ac.kr

접수일자: 1998. 5. 10  
계재결정: 1998. 9. 30